

최경식 남원시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남원시 관계자는 최경식 시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14일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이기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자'는 선언문을 주제로 진행되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최 시장은 황인홍 무주군수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 진안군수와 순창군수를 다음 참여자로 지명했다.

최 시장은 "남원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군산대 학장 등 보직교수, 릴레이 발전기금 기부

올해부터 국립군산대학교 학장 등 보직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 릴레이 발전기금 기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15일 자율전공대학 박규연 학장, 인문콘텐츠융합대학 정기문 학장, 국립군산대 미술관 임영희 관장 등이 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1,500만원을 기부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은 재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및 장학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컴퓨터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 정동원 학장 등을 비롯해 교수 등이 총 6,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엄기국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대리는 "대학에 기부한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잘 활용하겠다"며 감사사를 표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남원시 도동동 생활복지센터 회원들, 산불피해 특별모금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도동광장 생활복지회 회원 일동(연합회장 김미숙)이 산불피해 특별모금으로 현금 8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도동광장 생활복지회는 여성의 자부심과 자립심 고취, 정서 사회와 양성평등 구현,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취미활동 단체이다.

한편 소선자 도동동장은 "산불피해 특별모금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지역민역량 강화지원 'ITQ 자격증반' 중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민 역량강화 지원사업 ITQ 자격증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종강식을 진행했다.

지역민역량 강화지원사업 ITQ 자격증반 과정은 파워포인트 분야로서 실질적인 자격 취득을 통한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자격시험 대비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키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12일 KPC의 정보기술자격 시험에 9명이 응시하였고 5월 1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열정의 결과가 확인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성교육, 협력으로 꽃피우다

장수교육지원청, 바른 인성 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과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지엽, 이하 인교연)은 15일 2025년 바른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천 중심 인성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인성시민 소양을 함양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인교연은 인성 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전국 단위 유·초·중·고·대학 교원들의 모임으로, 추지엽 위원장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1항을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성 코칭 교육인 "효, 예, 정직, 책임 등 인간이 본래 가지고 나오는 본성을 찾아주는 인성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인교연은 초등·중·고·대학 교원인 "나를 발견하는 여행"을 출간하여 첫 시범으로 현재 경북포항장원초등학교(교장 추은영)에서 실시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평소 추영곤 교육장은 "실력은 바른 인성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장수교육의 인성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는 실력뿐 아니라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장수 지역이 인성교육

/장수=고관호 기자



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과 실천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공동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학생 진단 도구 제작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실천적인 인성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함께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마음 건강, 감정 조절, 공감 능력, 공동체 역량 등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정신 건강 증진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영곤 교육장은 인성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실천적 노력은 학교와 학생들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선운산농협,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전개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은 15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농협고창군지부와 선운산농협 임직원 및 선운산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40여명이 참여하여 공영면 무장기포지 일대에서 폐비닐을 비롯한 영농부산물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미정 지부장은 "농협은 '영농후 환경애'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인 농촌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안동시에 산불 피해 성금 기탁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회장 장성태)는 15일,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협의회를 직접 방문해 성금 88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연대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성금은 장성태 회장이 자비로 100만원을 먼저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시협의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한 총 580만 원 가운데 일부이며, 나머지 200만원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 기탁했다.

이는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안동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상생의 뜻을 담은 것이다.

성금 전달식은 안동시 협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의 핵심 가치인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장성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안동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연대와 나눔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

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는 이번 성금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과 연대 활동을 통해 더 따뜻하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임실 성수면 오류 어머니회, 임실군에 장학금 기탁

성수면 오류마을 어머니들회(회장 최아순)가 15일 100만 원의 장학금을 임실군 애향정화회(이사장 심민)에 기부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한 선한 영향력이 임실군의 미래인재를 씩씩우는 든든한 양분이 되고 있다.

성수면 오류마을 어머니들회는 2019년 16명을 시작으로 현재 50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 활동과 장학금 사업, 봉사에 적극 참여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다.

이번 장학금 기부 역시 지역사회를 위한 진심 어린 나눔으로, 성수면 오류마을에 거주 회원들과 타지에 거주 중인 회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장학사업을 실천한 결과 3년간 누적 기부액이 300만원에 달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김중희 코빅스 대표, 남원시에 삼푸 851개 기부

남원시는 노암농공단지 내 화장품 전문 생산업체인 (주)코빅스(대표 김중희)가 15일 삼푸 851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그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나눔 활동의 일환을 넘어, 보다 광범위하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코빅스의 사회적 책임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중희 (주)코빅스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기부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설자원공제조합 전북, 정읍 산불 피해 500만원 성금

정읍 소성면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북지부가 500만원을 기탁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전북지부는 지난 14일, 정읍시청을 통해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탁은 전북지부가 회원사 44개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됐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해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농협, 적상면·부남면 초·중교 학습용품 전달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15일 적상면, 부남면 4개 초·중학교 적상초·중, 괴곡초, 부남초·중, 부당초를 방문 학습용품 9세트, 책가방 70세트(14백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재단에서 취약계층 자녀 및 농업인 자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지역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뤄졌다.

곽동열 조합장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의 희망찬 학교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소생이 마마사 예술인 모임, 무주군에 성금 기탁

'마음과 마음을 모아 노래하는 예술인 모임'에서 지난 15일, '남소생이 마마사'와 함께 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자선 모금 버스킹으로 모인 성금 73만 원을 무주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써달라며 무주군에 기탁했다.

전병식 대표는 "남소생이 마마사(마음과 마음을 모아 노래하는 예술인 모임)하는 사람들로 한 달에 한두 번 전국을 다니며 지역과 이웃을 위해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노래를 들으며 뜻을 모아주시는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만인 만큼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